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10-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신과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인식 조사

2022. 12. 14.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신(神)의 존재, 그리고 신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응답자 48%, 신(神)은 존재한다고 믿어
여성, 50대 이상,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에게서 신의 존재 인정하는 응답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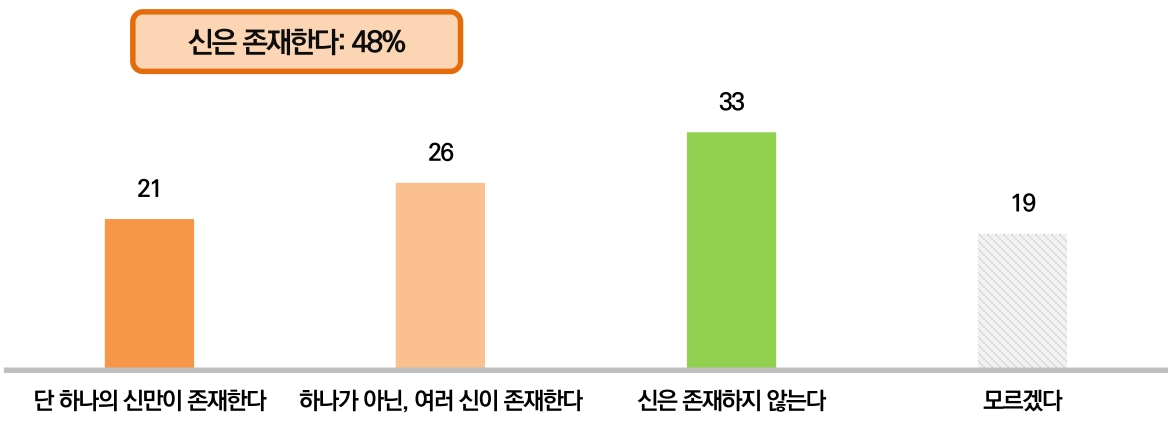
신은 존재하는가?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존재했을 법한 이 질문은 신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논쟁이기도 하다. 또한 삶을 대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신의 존재에 대해, 의견은 크게 셋으로 갈린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 신은 없다고 보는 무신론, 그리고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이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8%가 '신은 존재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단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21%,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26%였다. 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로, 3명 중 1명이 신은 없다는 의견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였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 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신(神)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절반 가량(48%)
33%는 무신론자, 모르겠다는 응답도 19%

(단위 : %)



질문 : 신(神)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2. 11.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다만,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신이 존재한다는 응답(39%)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43%)이 엇비슷한 반면, 여성은 신이 존재한다는 응답(56%)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23%)을 두 배 가량 앞섰다. 또한 50대 이상에서는 신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31%가 단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고 답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반면 18-29세에서는 42%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종교 유무에 따라서도 의견은 갈렸다. 믿는 종교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75%가 신이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개신교 신자는 87%가 신이 있다고 답했고(유일신이 존재 66%, 여러 신이 존재 22%), 천주교 신자 또한 78%가 신의 존재를 믿었다(유일신이 존재 40%, 여러 신이 존재 38%). 불교 신자 또한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보다는 낮지만, 57%가 신이 있다고 답했다(유일신이 존재 10%, 여러 신이 존재 47%). 반면 믿는 종교가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24%만이 신이 있다는 의견이었고, 50%는 신이 없다고 생각했다.

여성, 50대 이상,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에게서 신의 존재 인정하는 응답 높아

(단위 : %)

	사례수 (명)	단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	하나가 아닌 여러 신이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21**	**26**	**48**	**33**	**19**	**100**
성별							
남자	(494)	18	21	39	43	18	100
여자	(506)	25	31	56	23	21	100
연령							
18-29세	(168)	13	29	42	42	16	100
30대	(151)	16	27	43	34	22	100
40대	(184)	14	28	42	32	25	100
50대	(195)	24	29	53	28	19	100
60세 이상	(302)	31	22	53	31	16	100
종교유무							
믿는 종교 있음	(472)	41	34	75	14	11	100
믿는 종교 없음	(528)	4	20	24	50	27	100
믿는 종교							
개신교	(206)	66	22	87	5	8	100
천주교	(97)	40	38	78	14	8	100
불교	(158)	10	47	57	27	17	100

질문 : 신(神)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2. 11.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신(神)의 존재를 믿는 사람 중 38%, '신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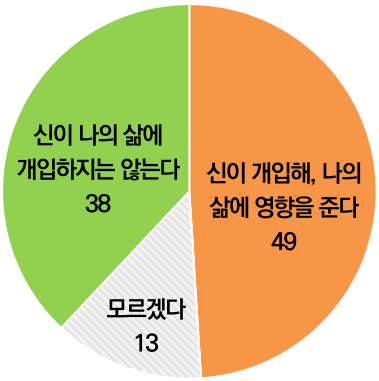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신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추가로 물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응답자 중 49%가 '신이 개입해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 라고 답했다. 반면 38%는 '신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1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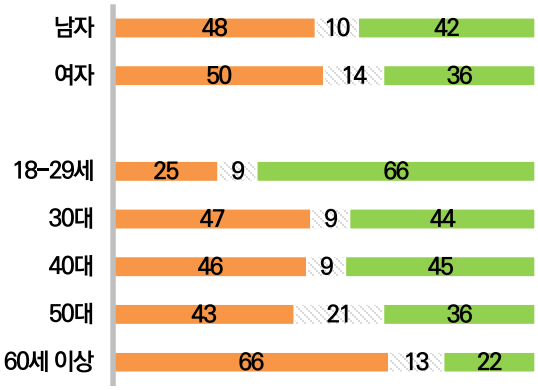
신이 있다고 믿는 60세 이상 응답자 중에는 66%가 신이 개입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신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응답(22%)을 크게 앞섰다. 18-29세는 정 반대였는데, 신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66%, 신이 개입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25%였다. 정리하자면, 60세 이상에서는 신의 존재를 믿는 응답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신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반면 18-29세 저연령층에서는 신의 존재를 믿는 응답이 높지 않고, 설령 신이 존재하더라도 나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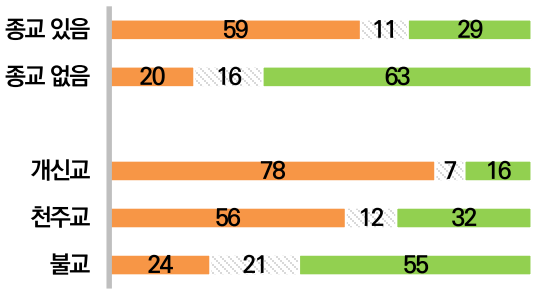
종교 유무에 따른 의견 차이도 확인되었다. 믿는 종교가 있으면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 중에서는 59%가 신이 자신의 삶에 개입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신이 있다고 믿는 개신교 신자 중에서는 78%,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56%가 신의 개입을 인정했다. 반면 불교 신자는 24%만이 신의 개입을 인정했고, 절반이 넘는 55%가 신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믿었다. 이는 믿는 종교는 없지만,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 사람의 의견(신이 개입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 20%, 신이 나의 개입하지 않는다 63%)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이다.

신(神)의 존재를 믿는 사람 중 38%, '신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18-29세, 믿는 종교 없는 사람에게서 '신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응답 높아

(단위 : %)







질문 : 신(神)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신은 존재한다고 답한 응답자 477명
조사기간 : 2022. 11.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

영혼과 귀신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다수
환생·윤회, 부활 등 종교적 사후관은 믿지 않는 사람 더 많아

신 뿐만 아니라 사후세계, 영혼, 천사, 악마·사탄, 귀신, 환생·윤회, 부활 등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고 있는지도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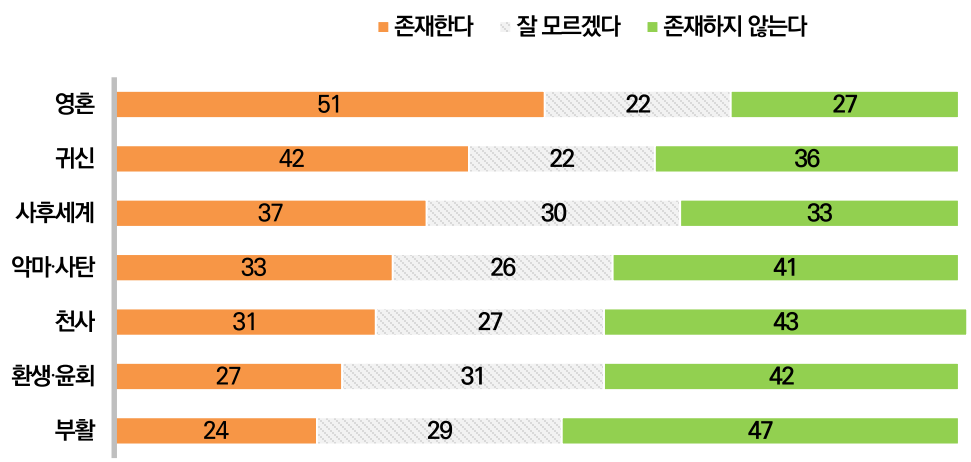
'존재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영혼'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51%가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다(존재하지 않는다 27%, 잘 모르겠다 22%). 귀신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42%로 그 뒤를 이었다(존재하지 않는다 36%, 잘 모르겠다 22%).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무형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37%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로, 영혼이나 귀신과는 달리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환생·윤회(존재한다 27%, 존재하지 않는다 42%, 잘 모르겠다 31%), 부활(존재한다 24%, 존재하지 않는다 47%, 잘 모르겠다 29%) 등 종교적 관점이 담긴 사후관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였다.

악마·사탄과 천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3분의 1 정도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고, 40%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영혼과 귀신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다수
환생·윤회, 부활 등 종교적 사후관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 더 많아

(단위 : %)



질문 : 다음 각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2. 11.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남성보다는 여성이 초자연적 존재를 더 많이 믿고 있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7가지 초자연적 존재를 믿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남성은 7가지 모두 존재한다는 응답이 과반에 못 미친 반면, 여성은 절반 이상이 영혼(58%)과 귀신(51%)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여성은 또한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44%가 존재한다고 믿어서, 없다는 응답(24%)을 앞섰다. 30대와 40대는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응답이 과반에 근접했고, 18-29세에서는 악마·사탄과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초자연적 존재를 더 많이 믿고 있어

(단위 : %)

	사례수 (명)	영혼			귀신			악마·사탄			천사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00)	51	27	22	42	36	22	33	41	26	31	43	27
성별													
남자	(494)	44	35	21	34	46	21	27	49	24	24	51	25
여자	(506)	58	19	23	51	26	23	38	34	28	37	35	29
연령													
18-29세	(168)	50	33	17	43	40	17	22	56	22	17	59	24
30대	(151)	57	26	17	49	33	17	36	40	23	34	44	23
40대	(184)	53	21	26	47	29	24	27	37	36	27	38	35
50대	(195)	49	28	23	38	38	23	37	41	22	34	44	22
60세 이상	(302)	50	26	24	38	36	25	37	36	27	36	36	28

	사례수 (명)	사후세계			환생·윤회			부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00)	37	33	30	27	42	31	24	47	29
성별										
남자	(494)	31	42	27	23	48	28	19	55	26
여자	(506)	44	24	32	30	36	34	28	39	32
연령										
18-29세	(168)	33	43	24	30	43	27	16	64	19
30대	(151)	42	33	26	34	37	28	25	50	25
40대	(184)	39	25	37	34	29	38	20	40	39
50대	(195)	36	33	31	22	48	30	25	47	28
60세 이상	(302)	38	32	30	19	49	32	28	41	31

질문 : 다음 각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2. 11.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초자연적 존재를 더 많이 믿고 있어 종교 신자 중에서는 특히 개신교 신자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 강해

종교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도 확인되었다.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은 절반 이상이 영혼과 귀신, 사후세계, 악마·사탄과 천사가 존재한다고 믿어,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개신교 신자는 불교의 사후관인 환생·윤회에 대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을 뿐, 나머지 6개 모두 존재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다. 반면 불교 신자는 영혼(56%)과 환생·윤회(51%)의 존재를 믿는다는 응답은 과반 이상이었으나, 악마·사탄(30%), 천사(25%), 부활(16%)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에 비해 크게 낮았다.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초자연적 존재를 더 많이 믿고 있어 종교 신자 중에서는 특히 개신교 신자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 강해

(단위 : %)

	사례수 (명)	영혼			귀신			악마·사탄			천사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00)	51	27	22	42	36	22	33	41	26	31	43	27
종교유무													
믿는 종교 있음	(472)	68	14	18	54	26	20	53	23	24	52	23	25
믿는 종교 없음	(528)	36	38	25	32	44	24	15	57	28	11	61	28
믿는 종교													
개신교	(206)	79	8	13	65	19	16	71	10	19	71	9	20
천주교	(97)	65	18	17	42	36	22	52	25	23	56	19	25
불교	(158)	56	18	26	49	27	25	30	37	33	25	42	33

	사례수 (명)	사후세계			환생·윤회			부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00)	37	33	30	27	42	31	24	47	29
종교유무										
믿는 종교 있음	(472)	57	17	26	33	37	30	42	29	29
믿는 종교 없음	(528)	20	47	33	21	47	32	7	63	30
믿는 종교										
개신교	(206)	71	10	19	22	52	26	62	15	23
천주교	(97)	52	21	27	29	28	43	44	29	27
불교	(158)	41	24	35	51	21	29	16	47	38

질문 : 다음 각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2. 11.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신의 존재, 특히 유일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일수록 초자연적 존재 믿는 경향 높아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유일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사람에 비해 초자연적인 존재 또한 믿는 경향이 강했다. 유일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다수가 영혼(존재한다 86%),천사(79%), 사후세계(76%), 악마·사탄(76%) 등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유일하게 환생·윤회에 대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다. 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천사(존재하지 않는다 82%), 악마·사탄(79%) 등 초자연적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다. 신의 존재를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초자연적인 존재 또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신의 존재, 특히 유일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일수록 초자연적 존재 믿는 경향 높아

(단위 : %)

	사례수 (명)	영혼			귀신			악마·사탄			천사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00)	51	27	22	42	36	22	33	41	26	31	43	27
신의 존재													
단 하나의 신 존재	(213)	86	8	6	65	21	13	76	12	12	79	9	12
여러 신이 존재	(264)	69	12	18	57	23	20	43	26	32	38	29	33
신은 존재하지 않음	(331)	24	57	19	22	64	15	7	79	14	4	82	14
모르겠다	(192)	35	15	50	32	21	47	14	29	57	12	32	56

	사례수 (명)	사후세계			환생·윤회			부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00)	37	33	30	27	42	31	24	47	29
신의 존재										
단 하나의 신 존재	(213)	76	11	13	24	55	21	69	19	13
여러 신이 존재	(264)	54	14	32	46	19	35	28	35	37
신은 존재하지 않음	(331)	10	68	22	15	66	20	2	82	15
모르겠다	(192)	18	22	60	23	21	56	5	35	61

질문 : 다음 각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2. 11.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2년 10월 기준 약 80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2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232명, 조사참여 1,270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3.8%, 참여대비 78.7%)
조사일시	• 2022년 11월 25일 ~ 11월 2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